

백수가 인류의 미래다

- ‘파문’ 지상중계 #1, 고미숙 편

제 1부: 상상이 가능해지려면, 정신부터 해방하자

기본소득 물결을 위한 첫 팔매질

한인정: 안녕하세요 <파문>의 진행을 맡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한인정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집담회 <파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파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소득을 자유롭게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파문에서 다양한 영역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한국 사회의 고민과 대안을 들어보고 기본소득을 통해 가능한 변화들을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니만큼 간단히 사회자 소개와 진행 방식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문>은 고정 MC인 저와 매달 변동되는 MC가 있으시고요. 이 둘이서 이달의

게스트에게 다양각색의 질문을 드리고 생각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고정 MC를 맡고 있는 한인정이고요, 기본소득을 공부하는 글쟁이고 별명은 ‘팔매’라고 하는데 ‘돌팔매’입니다. 돌팔매 뜻은 직관적인 건데요, 어느 공간에서건 아주 작지만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키고자 ‘팔매’라는 별명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겸 MC를 소개를 해야겠죠. 오늘의 객원 MC는 정우주 선생님이신데요, 저도 오프라인으로는 사실 오늘 처음 뵙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왔던 사이인데, 실제로 보니까 한 열 배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정우주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정우주: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정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조그마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기도 하고 의사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많이 공부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인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인정 선생님 뵙고 싶었는데 뵈니까 역시나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소득 <파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왜 <파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가요?

한인정: 파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수면에 있는 물결’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변화의 물결무늬가 하나하나씩 생겨서 퍼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 기본소득도 작은 변화지만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넓게 퍼져나가길 기대하며, 그 이미지를 현실 속에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공부하고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 고미숙

한인정: 이제 오늘의 <파문>의 첫 게스트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매불망 기다려 왔고요. 저는 어제 사실 밤잠을 설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기도 하거든요. 정우주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우주: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읽으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소개를 드리자면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낭송의 달인 호모큐라스』,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또 『몸에서 자연으로, 마음에서 우주로』 등등. 굉장하죠? 그런데 현재는 감이당과 남산강학원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누구인지 대충 눈치채셨을 텐데요. 환영합니다. 고전 평론가 고미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고미숙: 안녕하세요.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한인정: 정말 뵙고 싶었는데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

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 주셨는지. 아마 핸드폰에 전화가 왔을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 때부터 사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미숙: 제가 SNS를 안 해가지고 하루에 공동체에서 오는 문자 몇 개 말고는 전화가 오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스팸 메일, 스팸문자, 재난문자… 그래서 전화벨이 울리면 되게 신기해서 받아요. (한인정: 일단 신기했다?(웃음)) 왜냐하면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무슨 광고하는 그게 많이 들렸는데 제 이름을 불러서 좀 놀랐죠. 이건 진짜로 한 거네 이렇게.

한인정: 전화기 속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어때요’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고미숙: 진짜 좀 귀찮았죠.(웃음) 저의 모든 정서의 밑바탕엔 이게 귀찮은 일인가 아닌가 항상 이렇게 나누는 습관이 있는데… 작년에 좀 어이없는 그런 인연으로 제가 기본소득 잡지에 글을 쓰게 됐잖아요. 계간 <기본소득>의 편집위원인 류보선씨가 10년 만에 한 번 전화를 할까말까 하는데 이름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번호가 아직 이름이 저장돼 있네, 너무 신기해서 받았거든요. 불쑥 원고 청탁을 해가지고 정말 황당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연락이 와서 그리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그 뒤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다든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로 막 관심을 환기하나? (웃음) 아무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조직이 이렇게 있다는 거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저희는 공동체에서 돈의 순환에 대해서 늘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테마가 제 귀에 들리긴 했는데 좀 이게 막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조직이 있다니 신기한데, 어떻게 활동하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을 땐 귀찮음과 궁금함 사이에서 막 갈등을 했죠. 그러다가 이럴 때는 그냥 하는 쪽으로 선택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정우주: 저희가 선생님을 알고자 왔는데 선생님이 사실 저희 조직을 파악하고자 오신 거네요.

고미숙: 그럼요. 제가 궁금하지 않으면 절대 안 옵니다.

정우주: 호기심이 이겼네요, 귀찮음을. 저는 의학 전공이다 보니, 또 한의학, 동양의학에 대한 늘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데, 누군가 곁에서 고미숙 선생님이 쓰신 동의보감 그 책을 권해 주셔서 읽고 있었는데 와, 이거는 몸과 어떤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미숙: 본인이 우주 아니세요?(웃음)) (정우주: 네. 이름이 우주기도 해서...) 왜냐하면 의학은 굉장히 객체를 조각조각 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걸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책을 쓰신 고미숙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존경심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고미숙: 되게 특이하신 거예요. 현대의학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약간 반감이 많으세요. 동양의학이나 동의보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우주: 제가 좀 특이해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웃음)

고미숙: 역시 이름이 그래서,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정우주: 뭔가 우주에 대한 이러니까...

고미숙: 내 애기인가 이려고 읽으신 거 아닌가, 흑사...

코로나 2년, 혹은 아주 훌륭한 공부의 기회

정우주: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도 이런 동의보감적 관점에 좀 연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요즘에는 코로나도 좀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근황은 어떠신지?

고미숙: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제 코로나 2년을 벌써 겪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게 전 인류적인 어떤 재난이었고 몸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과 자연, 바이러스와의 관계라는 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아주 훌륭한 공부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생활하는 게 주로 읽고 쓰고 말하고 산책하는 거여서, 도심에 있지만 도시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어

면 뭘 포기하거나 막 뭘 참아야 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도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막 욕망을 교차하는 곳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된 거죠. 거기에 코로나가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삶 자체가 도시와 자본의 욕망 좀 외부에 있다는 걸 코로나가 알려 준 거예요. 저희가 남산 밑이니까 서울 도심 한가운데인데도 코로나 2년을 청년들도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거를 거의 못 느낀 것 같고. 근데 이제 세상이 막 이렇게 너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배운 고전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굉장히 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정우주: 그러면 기존의 이렇게 해 오셨던 그 공동체 공부 공동체 내에서의 그런 삶의 형식이 코로나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생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지금 하고 계신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셨다고 보아도 되나요?

고미숙: 아니 그런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우리가 대안이 됐나? (웃음) 제가 20년 전에 중년 백수, 박사 백수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년에 백수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21세기 돼서 본의 아니게 내가 백수의 원조가 됐나 그런 느낌과 비슷한 건데... 앞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 이럴 때 우리가 그동안 실험했던 것,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나라고 했던 것들이 작은 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있죠.

한인정: 산을 가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산에 가 보면 원래 정해진 길 말고 꼭 누군가가 새로 가놓은 길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길이 막혔어, 그러면 새롭게 작은 길을 만들어 가야 돼, 그런데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셨던 그런 느낌인데... 그 지점에는 되게 좋은 벗, 고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전 하면 고미숙... (웃음)

고미숙: 그래요? 좀 과장인데...

연암 박지원과의 사건적 조우 혹은 운명적 조우

한인정: 고전이 선생님의 친구고, 또 사실 스승이고 그런 건데, 삶의 되게 커다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고전이 궁금해요. 고미숙의 원픽을 고르자면?

고미숙: 그건 너무 연예인들한테 하는 질문인데... 연예인들한테 질문할 때나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웃음) 고전을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읽고 있는 게 최고의 픽pick이에요. 지금은 초기 경전 『숫타니파타』나 『축의 시대』 같은 영성에 대한 텍스트를 보고 있는데, 이전에 읽었던 『동의보감』, 『열하일기』, 『임꺽정』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고 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초기 경전 『숫타니파타』를 읽으면 『열하일기』가 새롭게 또 변주되고 카렌 암스트롱의 『축의 시대』를 읽으면 그 안에서 『동의보감』이나 『주역』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막 변주가 되는 거죠.

한인정: 고전이 소비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고미숙: 절대, 흘러가요, 흘러가. 파문도 이렇게 물결이 흘러가야죠. 그게 어디서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전은 파동이에요. 그리고 고전이 친구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전을 읽으면 친구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이당, 남산강학원이 2060이 크로스 돼서 계속 같이 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고전이라는 스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너무 없다 그런 분들은 고전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생깁니다.

정우주: 선생님 책을 일부 읽었지만 반복해서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인용하거나 그의 삶을 좀 풀어내시는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 짧게나마 박지원을 좋아하시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미숙: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한국고전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대학원에 다닐 때는 연암에게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제도권 공부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백수가 되고 교수 진입 포기하고 공부 공동체를 열었을 때 『열하일기』가 그냥 느닷없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미션으로.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 신체 조건이랑 사회적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열하일기』를 통으로 읽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연암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웃음) 너무 강렬한 접촉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고전 평론가라고 제 스스로 이름을 바꾸고 『열하일기』 다시 쓰기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동의보감』 만나고 『주역』 만나고 불경을 만나면서도 연암이 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나의 벗이자 스승이다, 늘 어쩔 이렇게 샘물처럼 계속 새로운 걸 생성시킬 수가 있지…. 사실 21세기가 지향할 만한 어떤 가치가 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마디즘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가 정말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새로운 비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미 조선시대에 다 실험하고 구현했던 이 느낌. 우정과 지성의 향연. 지금도 저는 늘 연암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암의 친구들이 있었던 데가 저희 감이당이 있는 남산 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무슨 이런 연대가, 이거 뭐지, 몇백 년 전에 여기 내가 백수였나, 여기서 딸깍발이었나 (웃음) 그 관점에서보면 연암은 정말 백수의 원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느날 문득 그 길을 발견했어요, 그냥 대문호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려져요. 어느날 문득 스스로 관직에 나가는 걸 포기하고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백두’라고 했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백수는 손이 비었다는 뜻인데… 근데 그 길을 청년기에 선택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너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 있죠.

오늘날의 청년이 연암을 만났을 때

한인정: 드라마에서 타임슬립해서 가잖아요? 그런 거 같네요. 시기도 비슷하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스스로 포기한 박지원의 삶과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런 활동들

이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선생님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는 힘든 환경같아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책들이 던지는 메시지의 의미와 영향이 되게 큰 것 같구요. 그래서 선생님의 책은 물론 선생님의 책이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고전들을 많이 봐야 하고 또 구매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고미숙: 갑자기 왜 책의 광고를…

정우주: 이건 선생님이 전혀 의뢰하신 않으셨고… (웃음)

한인정: 저는 너무 좋은 책을 만나 가지고… 주변 친구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 지식이라는 게 선생님 혼자서 생산하지 않으신 거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미숙: 그래서 작년에 저희 20대 청년들이 『연암집』을 읽고, 문집을 읽고 에세이를 쓴 『청년, 연암을 만나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연암이 쓴 글을 읽고, 그 당대 최고의 문장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한문으로 나온 문장 중에 최고 수준이예요, 연암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문호의 글을 읽고 청년들이 우리 시대에 겪는 청년 문제랑 결합을 해서 에세이를 썼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연암이 쓴 글을 읽고 감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무원인 친구한테 연암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연암의 친구들 중에 갑자기 비명횡사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읽으면 소리 소문 없이 목숨을 버리는 청년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막 이런 게 시대를 초월해서 오버랩되어 있어요. 책 홍보를 해야 한다면 『청년, 연암을 만나다』 홍보를 해주세요. 이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정우주: 선생님의 그 멘트만으로 바로 홍보가 되는 거 같은데요…

고미숙: 저는 그때 연암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살아 있구나, 이렇게 청년들하고도 교감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뻐

어요.

정우주: 저도 선생님 통해서 실은 연암을 만났는데, 실은 연암의 글을 읽진 못했지만, 선생님 통해서 만난 연암은 어쨌든 저를 굉장히 흥분하게 하고 또 굉장히 이런 방향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엄청난 자극을 주더라고요.

고미숙: 파문,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네...

한인정: 연암의 글이 나 잘났다 이런 글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와닿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말하자면 선생님의 말씀은 함께 배우고 함께 생산하는 그런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며, 이처럼 무엇이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릴 때 인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건 되게 의미가 깊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지면 좋겠다 기대를 하며, 여기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방금 얘기해 주신 ‘백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청년, 연암을 만나다』 그 책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2부: 온전한 자유인, 백수가 인류의 미래다

백수란 무엇인가, 무용지물 vs 탈 임금노예적 주제

한인정: 예, 금방 찾아왔죠. ‘백수가 인류의 미래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고미숙이 말하는 백수와 백수가 만드는 해방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건데요. 제 손에는 지금 고미숙 선생님의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가 들려 있는데, 이 책이거든요. 출판사 직원이 된 느낌이에요. 이 책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정우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정우주: ‘백수’를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온통 부정적이예요. (한인정: 안 좋은 거 다 나와요. 별다른 직

업 없이.) (고미숙: 추리닝, 쓰레빠) 혹은 길에서 자는 모습이라든지, 낮에 평상 같은 데서 술을 먹는 모습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미지화되어 있죠. 실은 그래서 어디에 가서 쉽게 나는 백수야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미숙 선생님은 백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백수란 어떤 의미인가요?

고미숙: 백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과 비노동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이 노동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외곽에서 했던 어떤 이미지? 그런 게 아주 무용하고 무익하고 게으르고 이런 거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오도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평생 노동하는 게 그렇게 좋아? (웃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20세기까지는 누구나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가끔 이걸 좀 정치적으로 토론해보고 싶어요. 그게 좋은 거였단 말인가?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때는 일자리가 많았다 할 때 이걸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매일 아침에, 예전에 새벽이었죠, 아침에 출근해서 밤 늦게 오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간신히 쉬고 이런 삶을 평생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게 더 고귀한가요?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백수라고 했던 거를, 지금 21세기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데, 그렇게 노동으로 일생을 바치고 싶어 하지 않은 시대에 백수 이미지를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그렇게, 그런 일을 정말 원하는 거야, 지금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한인정: 일단 아닙니다. 저부터도.

고미숙: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고귀하죠? 그냥 물건을 생산하고 거기서 오는 화폐를 얻고 그거를 틈틈이 소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삶이

야. 그건 예전에 진짜 얘기한 임금 노예죠.

정우주: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방금 말씀하신 임금 노예,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틈틈이 소비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고미숙: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80년대처럼 주 7일, 일요일까지 나가고 밤 10시에 오고 이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 5일도 지금은 많고, 주 4일제도 벌써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개념도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통계만 나오면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섬세하게 변화하는 마음, 욕망의 변화는 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식의 주 3일이든 주 4일이든 내가 일을 해서 자립을 하고 싶다,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일단은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소비 말고 없어요. 왜? 이 사회에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소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소외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주 3일이든 주 4일이든 IT기업이든 택배든 대우가 좋은 데 들어갔다, 대기업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긍심을 갖고 이건 너무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런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소외가 일어나요, 이중 소외가 일어나요. 그 진입에 성공한 청년들 지금은 중년이 됐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하고 소비도 마음껏 했어. 그 뒤에 뭐가 남을까요? 허무. 이 코스를 지금 전 국민이 반복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거에 어디 이의가 있어요?

한인정: 저는 지금 10,000% 공감하고 있어요, 10,000%.(웃음)

고미숙: 좀 뺑이 세시네요.(웃음) 이미 살아봤잖아요, 중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삶이 이렇게 펼쳐진다, 임상자료가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근데 요 챗바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치경제학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먹고 살 만한데... 어우

제가 대학 다닐 때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식주의 자립이 가능하고 내가 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는데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비루한 데로 집어넣어요? 노동의 소외, 소비의 소외. 저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좀 화가 나는 게 지금 50대, 60대 민주화 세대가 왜 자식을 그런 데로 몰아넣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명문대에 가서 그런 노동시장에 들어가라고 들들 뉘는지 하여튼 이거는 진짜... 왜 이런 토론은 안 해요? 이런 토론하는 곳이 왜 없죠?

한인정: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임노동이 있는가 하면 그 임노동 밖의 다양한 상상도 가능할 텐데... 요즘은 사실 좋아하는 걸 하면 돈 벌잖아요? 유튜버도 돈 벌고, 요즘은 유튜버가 사실 거의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는데, 임금노동 말고 그 밖에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5~60대 역시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단 한 번도.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거라고는...

삶에 대한 상상력과 잠이 있는 삶의 회복

고미숙: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제도로서의 자유와 제도로서의 평등만 생각한 거야. 정치적 자유, 경제적 평등. 이거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총만해요. 이 영역에 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것을 먼저 자각을 해야 삶의 상상력으로 정치와 경제를 재구성하게 되겠죠. 삶이 일단 바뀌어야 해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정치, 경제 안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3만 불이 되건, 앞으로 5만 불이 돼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저는 정말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정치와 현실경제에 상당히 거리두기를 시작해서, '아, 이런 기본소득도 있었어?' 하게 됐어요. 문제는 상상력의 문제예요. 삶에 대한 상상력.

정우주: 말씀 듣다 보니 제가 상상력이 부족하게 살다

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희 부모님 세대로부터 주입된 일종의 엘리트 과정을 통해서 기득권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오다가 이게 뭔가 제 삶의 방식이 잘못됐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 상상력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여러가지 책들이나 주변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큰 자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한다는 게 용기가 동반돼야 되더라고요. 삶에서 실천하려면. 더불어서 그 용기를 갖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주변에서 대부분은 또 이런 상상을 좀 만류하거나 거기로 가면 안돼,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고미숙: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헤어지면 되고요. (웃음) 새로운 관계를 만나는 거예요, 길 위에서. 인생은 길이지 뭐. 초중고 대학 동창들 하고의 관계에서 삶이 결정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21세기의 디지털 문명, 그리고 AI, 로봇이 노동을 한다 그럴 때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네, 인간은 일을 안 해도 기계가 해서 생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노동을 안 해도 사회적 부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석기 이래 인류가 꿈꿔왔던 유토피아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인간을 괴롭힌 게 뭐냐면 농업혁명부터 시작이 됐어요. 뼈 빠지게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나마도 착취를 당하는... 그리고 기계가 생겨나면서 노동자들이 살 만해졌나 그랬는데 그런데 또 어마어마한 착취가 일어났어. 근데 디지털이 그걸 해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기회가 생긴 건데... 그럼 누가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예? 백수가 당연히 이 시대를 향유하지.

진짜 잘나가는 직업일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요. 방송계, IT업계가 얼마나 심한지 아시잖아요? 저는 방송 쪽은 인터넷이나 강의 때문에 종종 가서 작가나 PD님들 좀 만나거든요. 진짜 그 삶은... 저렇게 힘든 삶을 어떻게 살지? 퇴근이 뭐 밤 새벽 서너 시고, 그 다음에 찜질방에서 가서 자고, 새벽에 또 나가고. 이게 고귀한 삶이에요? 어떤 연봉을 준다고 해서 이게 고귀한 삶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전도가 됐나, 단단히. 고귀한 삶은 일단 밤에 자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웃음)

정우주: 네, 잘 자야죠.

고미숙: 밤에 폭 자야지, 그게 만병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걸 누릴 수 있어야죠, 일단. 백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폭 잡니다.

한인정: 그렇게 말씀하시니 백수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데요. 술도 마셔보고 잠도 한 번 폭 자보고. 저도 이전에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프니까 산책도 다니고, 순환도로를 매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때 길고양이들의 삶을 봤는데, 때 되면 자기도 하고, 남의 걸 크게 뺏지도 않고 하며 살고 있었어요. 넘어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되게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고 그런 특성 때문에 백수들이 인류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고미숙: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면, 폭 자고 일어나면 몸이 상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참 사는 게 참 재미있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을 못 자고 밤에 야식 먹고 온갖 인터넷 화면을 서칭하다가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대한 비판이 먼저 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산다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낮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낮에 두 번 이상 산책할 수 있어, 와이거는 뭐! 우리나라 어떤 부자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합니다.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남산순환도로를 거의 뭐 저희 앞마당처럼 쓰거든요. 삶의 이런 질, 구체적인 내용의 질을 따져서 좋은 삶과 좋지 않은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싹 무시하고 연봉이 얼마인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준이 몇 개 있잖아요? 주식. 이런 걸 하느라 잘 못 자고 산책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면 이걸 뭐 10년 안에 반드시 병나잖아요, 그렇죠?

정우주: 그렇죠

고미숙: 병나죠. 모든 병, 만병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꿈꿀 수 있어요?

정우주: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두가, 모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많은 정말 사람들이 뭔가에 지금 홀려서 이게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연봉과 혹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움직임에 늘 불안하고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본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인 양 좀 잘못 알고 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미숙: 그래서 제가 주식의 달인인가 뭐 그런 분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행복하냐 하니까 주식이 이렇게 상한가 칠 때인데 딱 30초 행복하대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 경험을 못 하고. 몸이 이렇게 쾌적하고 정말 몸이 완전히 릴랙스 돼서 너무 편안해 이런 순간이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잘나가는 연예인, 그런 주식 부자들이 있는 어떤 모임이었는데 한 번도 없대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완전히 전도되지 않았나요?

고전 읽는 백수, 혹은 가장 즐거운 에코바디

정우주: 떠오르는 옛 과거 사건인데 지금도 진행형일 수 있으나 그렇게 잘 나가는, 일종의 연예인이라든지 혹은 고액 연봉자라든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결국에 수면을 잘 못 이루고 해서 약물에 의존하고 결국 그거에 중독되는 것들이 한창 이슈였었는데 진짜 그게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너무 비정상적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따라갈 경로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모두가 또 그쪽을 따라가고 있는 게...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 ‘백수가 미래다’라는 게 정말 와 닿습니다. 생산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만 바꾼다면 모두가 좀 백수가 되어 가고 또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잠도 잘 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돌보고 고전도 읽고 산책도 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 전환하지 못하고 뭔가에 속박되어 있던 말이죠. 상상력이든, 현재의 어떤 삶이든, 경제적인 여건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부분부터 실타래를 풀어가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실지?

고미숙: 그러니까 기준을 몸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많이 아프잖아요. 예전의 병이 사라진 만큼 또 많은 병이 생기는데 주로 마음의 병이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이 너무 헛헛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다 병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여기서 시작을 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세밀하게 관찰을 안 하고 마음이 헛헛하면 바로 술과 비슷한 것들에 취해서 잊어버리거나 더 센 어떤 투자나 뭐 이런 걸로 ‘살아 있어’라고 느끼고 싶어 한다거나 공허를 중독으로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회로가 이런 게 이 자본주의 안에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계발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 회피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멈춰야 되고. 잘 관찰을 하면서 그러면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돼요. 몇 십 년 살아보셨으니까, 지금 5~60대는. 그 사이에 역사의 변화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세계 전체도 좀 살펴보고 아~ 이런 삶은 결과가 너무 똑같구나, 어디에 살아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책이고 고전이예요. 고전을 읽으면 몇 천 년 전부터 인간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심지어 몸도 건강해. 근데 마지막에 오는 이 허무를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 코스에서는. 그래서 고전의 현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철학, 공자, 노자, 붓다 그리고 종교의 선지자들. 이렇게 등장한 이유가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에 가면 결론은 똑같아, 열심히 일하고 영광을 보다가 몰락해서 허무하게 죽는다. 이 데이터를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디지털 문명이나 화성 여행도 그거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몸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백수가 돼서 고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동의보감』 배우게 돼서 이렇게 저를 투영할 수 있는 고전의 거울을 만나게 되면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남산강학원의 '청공자'(청년, 공부로 자립하자) 프로젝트와 백수들의 탄생

정우주: 역시 고전, 고전으로 보는 내 몸,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저희가 참 궁금한 건데 감이당과 남산강학원에서 같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고미숙: 2060들이.

정우주: 특별히 청년들이 많은 곳이 남산강학원 맞습니까?

고미숙: 네, 맞아요.

정우주: 그곳의 청년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고미숙: 청년을 키워드로 삼은 건 얼마 안 되고, 그 전엔 대중지성, 대중과 엘리트가 나누어지던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글을 쓸 수 있으면 그

냥 그게 지성이다, 그렇게 대중지성 코스를 진행해왔어요. 그러다가 청년이라는 화두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각이 되고 저희들도 청년들이 생기니까 이 세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촉발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안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개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코스를 따로 진행하기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르고 그때 제가 '더 넓은 곳에 가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공부를 하게 해줘야 돼' 하고 마음 먹었는데, 개가 그때 청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까지 거기서 공부해서 철학 책을 써냈어요. 20살에. 개가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무슨 대단한 천재성을 갖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학교 코스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안 되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동안 공동체 활동을 하고 철학 책도 쓰고 그러니까 너의 청춘을 마음껏 펼쳐봐라 그래서 뉴욕을 보냈어요. 본인도 기꺼이 가겠다고 해서 뉴욕에 가서 거기 몇 년 있고 거기서 학교를 두 군데를 다니고. 왜냐하면 뉴욕에 거주하려면 학생이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쿠바를 갔는데 쿠바에 가

서 의학을 하겠다고 바꾼 거예요. 인문학을 하다가.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쿠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철수해서 지금은 스페인에 가 있어요. 같은 언어권이라서. 스페인의 대를 다니는데 진짜 학비도 너무 싸고, 쿠바에서는 너무 비싸가지고 고생이 많았었는데, 저는 무료라 그래서 얼른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한국은 또 부자 나라라서 일 년에 거의 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1년에 2백 몇 십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에 대해서 그 급호감이 생겼지 뭐니까? 그래서 거기 갔는데 심지어 주유천(周遊天下)을 하는 중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같이 국제 백수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계속 글도 보내고 책도 계속 내고 영어로 된 텍스트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출발점이었고 그 이후에 청년세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길래 ‘청공자’ 프로젝트, ‘청년, 공부로 자립하자’, 공부 가 삶의 자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공자처럼 살아 봐라, 공자처럼 주유천 하면서 정말 철학적 완성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본격적인 백수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지금 해마다 한 20명 정도가 거기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한인정: 저는 특히 이름이 독특했어요. ‘남산강학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남산강학원’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강학이라는 뜻이...

고미숙: 그게 고전의 공부이예요. 스승이 강하고 배운다 그런 의미로 ‘강학’이라는 말이 아주 고전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동양 고전에서.

정우주: 기존의 이런 학교에서 하는 공부량은 좀 다른 것이겠네요.

고미숙: 기본적으로 고전을 공부하는데, 고전이 또 삶의 여러 분야랑 연결이 되니까 실천, 행동 또는 사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고전이 한 가지로 이렇게 뭉뚱그려지게 아니거든요. 동양 고전, 서양 고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반드시 현대 과학이 결합이 되어야 해요. 지

금 시대는 동양 고대 지혜와 첨단 서양 과학이 크로스 되는 시점이에요. 지성사의 관점에서. 여기가 최고의 수준이에요. 동양 고전, 주역이나 불경 같은 거 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하고 데이비드 봄(David Bohm)의 양자역학 이게 크로스 되면 인류 지성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든 최고 수준의 지성에 도달하게 해야 해요. 연결시켜 줘야 해요. 근데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진도를 맞춰 가느라고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머무르게 해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양 고전과 접속하는 순간 바로 최고 수준 하고 만나야 돼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초등학교에만 살면 초딩 사유만 하다가 끝나야 됩니까? 20대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죠.

감이당, 정신 진화의 성소

정우주: 이해가 되네요. 저는 오늘 만남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데서 강의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을 좀 봤는데, 거기서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시는 걸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특히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 화폐로만 향해 있고 그걸 축적하는데 모든 게 맞춰져 있다, 그런데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결국에 마주하는 건 공황이나 우울일 뿐이다, 그 내용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반복된 일상, 조그마한 진료실 한 3평, 4평 정도 되는 곳에서 반복된 것들을 하고, 진료를 마쳤을 때 찾아드는 허무함이 있고, 또 통장에 찍혀있는 그 숫자뿐인 그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것 위해서 사는 걸까, 왜 이것 반복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깨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감이당에서는 또 좀 이런 것들을 깨고 싶은 중년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이당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미숙: 감이당에 온 중년, 우리가 대중지성이라고 하

는 그분들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예요.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탄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구축을 했는데, 그런데 50대가 되는 그 폐경기 혹은 갱년기가 올 때 생리적으로, 이 자리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런 말하기가 참 편하네요. 몸이 ‘나 중산층이야 그리고 나 열심히 살았어’ 이걸로 내 몸의 호르몬이 알아서 ‘충만해’라고 들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살려고 나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낸다구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다 찾다가 우리가 삶과 삶의 일치니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오긴 왔는데, 와서, 진짜 제가 생각해도 황당하네, 저희는 공부, 제가 공부를 했던 과정이 있으니까, 『동의보감』도 하고 뭐 ‘사주 명리학’도 하고 『주역』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뜬금없이 오늘 날 『주역』 공부를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고 갑자기 자기 삶이 진짜 우주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썩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쩔 이렇게 안 느냐고 저한테 맨날 온갖 구박을 받아도 너무 꾀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그 공허함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정말 과학의 생물학적으로 풀고 싶은데, 인간은 진화를 해서 여기 도 달했잖아요. 우리는 물질적 진화를 여기까지 했어요, 뭘 해야 돼요? 정신의 진화를 해야 돼요. 정신이 계속 더 나아가야 돼요. 넓고 깊은 데로. 못 나가니까 거기서 생리적으로 역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뭐 하러 살아? 이렇게. 절대 이거는 돈이나 아파트 평수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전 국민이 겪고 있는데도 정치적, 문화적 의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항인데. 근데 저희는 그걸 핵심에 놓고 공부하는 텍스트들을 보는 거잖아요. 중년들이 굉장히 두터워져서 공부의 역량이 되면 다 자기 네트워크를 하도록 독립을 시키는 게 저희 조직의 방식이에요. 절대 조직을 키우지 않아요. 네트워크가 되면 감이당이란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무슨 프랜차이즈처럼 무슨 지점,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

미도 없고. 그래서 지방에서 몇 년 동안 올라오던 분들이 각각 지방에 대구, 창원, 제주도, 이런 데서 자기 공부방을 차렸어요. 다만 감이당과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으로써만 우리는 함께 간다, 그것도 고전의 지혜를 통한 존재의 진화, 이거를 공유하는 한에서. 이렇게 해서 많은 중년을 구원을 했죠. 그게 청년들하고 딱 만나면서 청년펀드를 만들게 된 배경이기도 해요.

정우주: 백수로 구원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미숙: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지혜의 비전하고 함께 하는 우정이에요. 이게 없으면 인간은 이 고립감과 단절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

정우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인가? 진짜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미숙: 근데 진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분들은 소크라테스,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이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정신의 대자유를 위해서 살고, 항상 친구이면서 벗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 죽음을 너무나 충만하게 맞이했기 때문에 플라톤이 그 스승의 철학을 세세생생世世生生 전달한 거예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대자유를 얻은 다음에 항상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공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너무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모든 문명권에서. 그런데 우리는 고립되고 단절된 채로 내 소유를 증식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행복은 포기한 거죠.

정우주: 그리고 소유를 증식하고 쥐는 방식으로 가면...

고미숙: 다 떨어지지. 사람이 없어요. 그건 필연지리必

然之理 아닙니까?

한인정: 정우주 선생님은 점점 그 길로 근접해 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의 대자유를 향하여. (웃음) 고립과 단절을 넘어서 정신의 대자유로 찾아가는 길.

저희가 백수에 대해서 사실 처음 이미지가 그랬잖아요, 술병에다 추리닝 입고 쓰레빠 짹짹 끌고 다니고, 그런 백수들이 그런 고민을 할 거 같아요. 고민이 실질적으로 그런 정신적 대자유로 이어지기까지의 가교로서의 ‘감이당’과 ‘남산강학원’이 있는데요. 이런 삶을 사유하는 사회가 진짜 멋있고 저도 사실 부럽고, ‘백수가 미래다’라는 말에 공감감이 가서 같이 백수를 꿈꾸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요. 반면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해. 선생님이 아마 그쪽에도 해답을 갖고 계실 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상을 찾았어, 이상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내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 그 가교로서 어떤 게 필요할까? 선생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까 빨리 듣고 싶은데, 선생님도 얘기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2부를 마쳐야 하는가 보네요.

여기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백수로 갈 수 있고, 기본소득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희 궁금증과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닿으면 좋겠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 3부: 증여의 기쁨, 인류해방과 기본소득

백수가 만난 기본소득, 백수가 상상하는 기본소득

한인정: 기다리셨죠? 금방 찾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백수천국, 백수만세, 백수미래 등등의 이런 해방 사회를 그려봤는데요. 그런 정말 좋은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런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 가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내가 그러고 싶은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와 같은 기본소득 덕후들은 ‘기본소득이 짱이다’, ‘기본소득이 그걸 가능하게 할 거야’, 이렇게 답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혀 있을 거 같구요. 하지만 사실 꼭 기본소득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강사, 시대의 지성, 정신적 대자유를 살고 계신 고미숙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고미숙 선생님 기본소득 좋아하시나요?

고미숙: 기본소득은 그냥 알 듯 모를 듯밖에는... 사실 애매한 상태예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걸 보고 뭔가 가까이 왔구나, 사실 저는 그게 귀찮아서 못 받았는데, 했어요. 근데 감이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같아요. 당연한 전제. 왜냐하면 중년들이 대중지성을 하러 오시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겠어 하고. 그런데 오는 중년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토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온다. 청년들은 자기 자산은 전혀 없죠. 부모님의 자산에 예속된 거니까. 그 예속을 뚫고 나와야 자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은 돈이 없고 중년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감이당에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본 경비를 빼고 모아 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너무 뻘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가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자연히 돈은 그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똑같이 N분의 1로 회비 내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인간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순환하는.

기본소득에는 돈을 대하는 태도, 윤리, 감각의 변화, 그런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래서 원칙이 청년은 자립해야 된다, 그러면 집을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비용이니까 주거비가 서포트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걸 해서 보증금 같은 것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그건 중년이 해야죠. 그리고 자립을 해서 부모로부터 나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을 만큼의 경제적인 어떤 활동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하고 싶은 여행, 내가 누구와 접촉하고 싶을 때 돈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죠.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자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나의 존엄성이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돈 때문에 못 하는 일이 없는 것. 이걸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본주의가 잊어버리게 한 것 같고 저는 민주주의 사회가 자유와 평등 안에 뭐가 빠졌을까 생각하면 인간이 원초적으로 참여 본능이 있다는 걸 까먹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모든 걸 다 제도에 맡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여 본능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제도에다가 제도적인 변화에만 위탁을 하고 본인들의 소유욕과 이거는 계속 그대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이 소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박탈감만 느끼는. 근데 돈은 기본적으로 도는 거예요. 저는 우리말의 ‘돈’이 너무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해요. 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돌거나 돈이 돌거나.

남산강학원과 감이당의 돈의 흐름, 혹은 미리 구현된 기본소득

정우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남산강학원과 감이당에서의 이 돈의 순환이 저는 기본소득과 닮아 있는 지점이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흐름 때 받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조건이 붙지 않는 것, 기본소득도 이걸 받는 사람이 어떻게 쓰든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지급을 한다는 것이 낙인도 찍지 않고, 단서가 붙지 않는 게 남산강학원과 감이당에서 이루어지는 돈의 흐름과 기본소득이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미숙: 그런 마음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는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은 공부를 한다는 건

그 안에 재물을 어떻게 나누는가가 반드시 있거든요. 좋은 공부란 재물이 내가 과연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를 삶에 이게 막 돈이 돌아다니면서 흘러오고 또 청년들이 주방이랑 카페 운영을 하고 그러면 엄청난 음식 선물이 들어와요. 그럼 1년 내내 너무 잘 먹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더 많이 들어왔는데, 뭘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최고의 과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뭐가 순환이 되네, 그러니까 애네들은 돈은 도는 거다, 참여, 조건 없는 참여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근데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걸 배우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슬픈 일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청년펀드를 조성해서 감이당의 기본자금하고 청년들이 주로 조성을 했는데 너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결합을 하셔서 좀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 그런 식의 참여를 할 기회가 차단돼 있었다는 거죠.

참여의 기쁨과 기본소득

정우주: 모두가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한인정: 근데 사실 기본소득은 지금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소득은 빼앗기는 것, 세금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국가에게. 근데 여기처럼 조건 없는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기본소득을 하게 될 때 ‘청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내 돈을 빼앗아서 저런 백수들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고미숙: 그건 정말 20세기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감각인 거죠. 일단 거기에 노동에 대한 태도나 시스템에 대한 여러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교정이 안 된 거고, 어떤 점에서 그걸 조장한 점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근데 어차피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내 세금으로 이렇게 조건 없이 참여를 할 때 기쁨을 모두가 누린다 이런 철학과 더 나가면 영성이 결합이 되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을 거

예요

저희 청년펀드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무려 2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체 활동을 하게 했어요. 공부가 경제활동이 되게, 그러니까 어디에 고용된 게 아닌데 경제활동이 되게. 저희 공동체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1년에 인건비가 1억, 2억 들어가면, 다른 데서 보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아까 얘기한 노동의 소외, 소비의 소외,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게 왜 불가능한가? 그래서 요즘 저의 고민은 사실 그 돈을 어떻게 돌려서 더 많은 청년들한테 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어떤 지점을 아주 잘 찾아내는 그런 것이 저의 유일한 고민거리예요, 사실은.

한인정: 그럼 혹시 감이당에 들어오신 중년 분들 중에는 사실 그런 청년 펀드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실제로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더 공감을 하시게 된 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고미숙: 많죠,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런 거 아예 상상도 못해 봤고 아예 돈을 그렇게 쓴다는 걸 상상을 못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랬는데, 청년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중년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생겨요. 뭐라도 주고 싶은데, 돈이 많아요, 중년들. 저는 이 많은 돈들, 이것만 써도 기본소득은 다 될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우리나라 중년들이 주머니 열면 청년들 지금 20대 일자리 그렇게 얻으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한인정: 선생님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2060의 우정의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고리로써의

기본소득

고미숙: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생활과 공부로 네트워크화되어 있으니까 증여의 기쁨이 자기의 삶과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통해서 가는 것은 너무 추상

적인 거야.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백수는 애가 너무 게으르고, 애가 성격도 이상해. 이렇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든 증여에는. 고전을 배우면 다 나와요. 내가 그걸 갖고 생색을 내는 순간부터 이미 증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돈을 다 증여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양에게 보답을 하지 않잖아요. 보답을 하십니까? (웃음) 아무 고마움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에게 남는 것을 순환시킬 때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 자체로 기뻐야죠. 그 기쁨이 보답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기본소득이 제대로 순환이 되려면 그야말로 곳곳에, 로컬 지역마다 청년과 중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사실 20대와 60대가 친구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걸 해봐서 알죠. 이거 생각을 못하셨죠? 친구가 동년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해요. 원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돼요. 나이 들면 동창에게 의지하는 거 아주 안 좋습시다. 나중에 혼자 남아요, 혼자. 맨날 빠지고 돌아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60대하고 20대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삼각관계가 생길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환상의 콤비예요. 저희는 그거는 진짜 확실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정우주: 세대적 관점으로 보는 게 맞냐, 아니냐? 그리고 혹은 이거를 세대 내에서도 그런 계급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느냐,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남산강학원과 감이당에서 보여지는 이런 순환 그리고 세대 간의 우애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고미숙: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뉴스 보면 막 20대하고 60대가 지금 보면 가장 막 뭐라고 하지? (정우주: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고 하여튼 서로 막...) 서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정말로 사회의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표상이에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될 수 있다. 음양의 조화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20대한테 60대 친구는 너무 편해요. 아무리 내가 밥을 얻어먹어도 괜찮은 상대예요. 그런데 또 자기 고민도 마음껏 얘기하고, 자기 단점 다 말할 수 있죠. 60대는 청년하고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노년이 재미있게 됩니다, 노년이 풍부해져요. 노년에 노년들끼리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노년복지에서 정말 꼭 고려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쓸쓸한 소멸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가족 단위에서 이제 그것도 끊겼잖아요. 손자를 접할 수 있는 노년이 점점 드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친구가 있어야 돼요.

한인정: 진짜 아니 저 되게 뭔가 멍한 게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 힘주고 사냐, 마음껏 웃고 살아라 하시더라구요. 그 할머니 보면서 사람이 죽는구나, 죽을 수 있구나, 어차피 그 유한한 삶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삶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사실 가장 와 닿는 부분은 기본소득이 화폐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로서의 기능 (고미숙: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세대 사이의 관계와 세대공감...) 등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외에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이 관계를 만드는 남산강학원...

혈연과 가족을 넘어서는

돈의 순환의 필요성과 기본소득

고미숙: 이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게 혈연과 가족을 넘어가는 돈의 순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친구가 되어야 해요. 세대는 뭐 이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혈연을 넘어가지 않는 돈,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예요. 동네에 청년이 있는데 내 자식이고 아니고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큰 다음에. 그리고 내 자식은 부담스럽지만 내가 나가서 만난 청년 친구는 너무 편

하고 좋아요. 친구잖아요. 그럼 거기 당연히 학비 주고 여행 보내주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짬짬하고. 까르마 이론에 따르면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식한테 돈 물려주는 건 여러 모로 모두를 진짜로 불행하게 만들지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달리 길이 없으니까 자식한테로 다 물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트워크 안에 청년 친구가 있어, 근데 가난해, 부모님도 뭐 변변치 않아, 당연히 돈이 흘러가죠.

한인정: 진짜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 백수만만세 사회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것 같아요) 기본소득과 제가 오늘 들은 것처럼 정말 네트워크를 정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공동체들이 더 많이 형성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지금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백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10년 전에 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도 생각하지 않고 돈도 없는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한 거 같아요. 고미숙 선생님의 오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생님 모신다고 그래서 약속하지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특별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우주: 저희가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특별 이벤트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진짜 잘 뽑으셨네요. 굉장히 좋은 선물, (한인정: 정신적 대자유로 가는 선물인가요?) 선생님께서 뽑으신 선물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음, 박종철출판사, 2021)을 뽑으셨습니다. 와, 이렇게 잘 뽑으실 줄이야.

고미숙: 이런 식으로 책 광고를 참...

한인정: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정우주: 이 책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서 그 결과물을 담은 책입니다.

고미숙: 다행히 생각보다 안 두꺼워서... 저는 두꺼울까 봐 아주 고민이었는데...

정우주: 신의 손이에요. 어떻게 이걸 딱 뽑으시는지, 대단하십니다.

한인정: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정우주: 저는 우선은 굉장히 감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과 이후로 인생이 달라질..(고미숙: 여기는 대체로 좀 뺑이 많은 분들이 결합하는구나. 가슴이 다 헛헛해.) 아니 진짜로 마음속에 어떤 씨앗처럼 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깨야 되겠다 하는 용기를 더 얻는 그런 시간이었고 기본소득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에 대한 감각, 관계에 대한 감각들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

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인정: 저도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역시 백수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립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살겠다는 걸 다시 한번 공표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파문 정말 제대로 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미숙 '백수가 미래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파문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편에도 기대하시는 그런 인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